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이야기

2022
청재의
이야기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이야기

이야기 순서

열기	04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성장	42
		part1.	
		진짜 하고 싶은걸, 이루어DREAM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세상과 이어주는 울트라캡송나이스 '직장체험'	
		청소년동반자,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part2.	62
		청재와 함께 성장한 청소년 이야기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민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토당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신윤서'	
		-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노을학교」 '김세현'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라운폼터」 '정하람'	
		<hr/>	
		닫기	68
청재를 소개합니다	06		
청재 프로필			
청재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청재의 성장기			
숫자로 확인하는 청재의 2022년	09		
청재가 함께한 人			
청재의 스피커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존중	10		
16년째 변함없는 마음으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레임 속 프레임, 그 특별했던 이야기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행복	24		
연기를 통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법을 배우다			
왔어요! 토.스터.즈!!!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			

열기

청재의 이야기

*이 책자에서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상징하여
'청재'라고 부르기로 함.



2022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청재와 함께하는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을
청소년의 목소리로 직접 담아보았습니다.

청재는

2016년에 고양시에 태어나

청소년 존중, 청소년 행복,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재는

청소년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호호 깔깔질걸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했던 2022년 그 1년의 이야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시작됐던

청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재를 소개합니다

청재 프로필

이름	청재(고양시청소년재단 또는 고청재 라고도 부른다)
생년월일	2016년 11월 1일
나이	7살(2022년 기준)
좌우명	일상생활을 즐겁게 살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존중·행복·성장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좋아하는 색	연두, 노랑, 빨강, 파랑
좋아하는 음식	일산시장 할머니 쌀 떡볶이
취미	고양시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만나서 놀기
특기	새로운 청소년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기

청재를 만날 수 있는 곳

덕 양 구	사무국·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2(JS빌딩 8층) 토당청소년수련관·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별따기배움터 1층) 주교청소년자유공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화정청소년자유공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지하63 행신청소년자유공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32
일산동구	마두청소년수련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
일산서구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두산위브더제니스 공공시설 2층

청재의 성장기(연혁)

2022	12월	2022년 경기도청소년활동 제안대회 3개부문 입상(탄현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도담비' 개소(고양시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서포터즈 고양시장 표창(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월	특례시 청소년재단 'ESG경영 라운드테이블포럼'(고양, 수원, 용인)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경기도지사 표창(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10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달성(5년 연속 우수등급달성)
	08월	경기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제안대회 경기도지사상 수상(성사청소년문화의집)
	07월	2023학년도 대입수시박람회 개최(전국75개 대학참여)
	06월	행신청소년자유공간 개소
	05월	고양시청소년축제'우리는z급'개최(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마두청소년수련관)
2021	12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토당, 마두, 일산서구, 성사, 탄현)
	11월	2021학년도 진로직업교육활동 우수기관(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10월	경기북부 청소년 환경포럼 개최(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08월	특례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05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책자 발간 (코로나19대응 비대면활동 사례집/청소년 핵심역량 키워주는 꿈꾸는 활동)
	04월	맞춤형온라인학습멘토링 실시(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동상담버스'공감톡톡' 운영(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0	12월	진로직업교육 활동 우수기관 표창(경기도교육감)
	11월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상 수상
	10월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형 청소년종합지원대책 발표
	09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S(최우수)등급 달성 교육부 수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선도센터(정비지원단) 지정
	07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온라인포럼 진행 (POST코로나 청소년활동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
	04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온라인개관 운영방향 및 전략 수립
	01월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직영위탁 시설 편입

청재의 성장기

2019	12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토당·마두·성사) (토당청소년수련관, 마두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
	11월	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육성유공표창(경기도지사상)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상 수상
	01월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재난안전교육 유공표창(경기도지사상)
2018	12월	마두청소년수련관 2018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여성가족부장관)
	05월	제1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 수상(여성가족부장관)
	04월	2017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최우수상 수상(여성가족부장관)
	02월	고양시 청소년지원네트워크 교류회 개최
	01월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진로체험 활성화 공로상 표창(교육부장관)
2017	12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마두)
	01월	고양시 문화재단에서 위탁법인 변경, 위·수탁 업무제결
2016	12월	고양시청소년재단 출범식
	11월	고양시청소년재단 등기 등록일(설립일)
	10월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발기인 창립총회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허가
	01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15	12월	경기도 승인
	05월	재단 설립 기본 계획 수립
2014	11월	청소년정책 시민토론회

숫자로 확인하는 청재의 2022년

청재가 만난 사람들 *명

청소년	비청소년
-	-
545,868	156,338

청재가 만난 다양한 청소년 *명

9~13세 남	9~13세 여	14~16세 남	14~16세 여
-	-	-	-
120,694	152,593	70,886	83,550
17~19세 남	17~19세 여	19~24세 남	19~24세 여
-	-	-	-
32,681	39,680	11,550	18,260

학교 밖 남	학교 밖 여
-	-
7,186	9,788

청재의 스피커 *건

언론보도	홈페이지
-	-
2,728	535

SNS	문자
-	-
292,870	250,026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정기 연구



① 16년째 변함없는 마음으로

②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③ 「프레임 속 프레임」 그 특별했던 이야기!

① 16년째 변함없는 마음으로

청소년자원봉사단 씨밀레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는,
‘먼저 연주한 부분과 함께 연주하라’라는 뜻의 음악용어처럼
16년 동안 청소년 주도의 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단 ‘씨밀레’가 있습니다.

씨밀레의 활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소년의 감성을 담은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봉사활동”입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식량위기, 채식, 플로깅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와는 먼 이야기,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씨밀레」비닐 없는 명절 만들기

하지만 씨밀레는 청소년들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개발하여
당장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씨밀레는 지구와 미래의 청소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탄소중립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제	2022년 1월 ~ 12월	누구랑	고양시 9~24세 청소년 + 지역주민
무엇을 어떻게	역량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본교육 ·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기획활동	탄소중립 이슈 4개 선정 : 반채식·새활용·플로깅·수질개선	
		채식 밀키트 체험·새활용플라자 견학·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등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 자료 제작	
봉사활동	이별 식탁 반채식의 개념 알기(플렉시테리언) 쓰임 새로 새활용(업사이클) 활동, 폐 페트병을 활용한 화병 만들기 쓰담 걷기 쓰레기 줄이기, 플로깅(줍깅) 파랑 윤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계면활성제 줄이기		
비닐 없는 명절 만들기	추석 명절기간 내 비닐봉투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봉투 배부 비닐쓰레기 문제 교육 및 환경인식조사 진행		

자랑하기 하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감성의 탄소중립 봉사활동 운영
둘. 씨밀레의 주도적인 운영 및 또래지도자 활동을 통해 씨밀레의 역량 발달 및 높은 만족도 달성
봉사활동 참여자들의 또래지도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남
셋. 2022년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연구 분야)에 사례 발표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수상
넷. 고양시 공식 블로그 인터뷰(기획기사) 참여(비닐 없는 추석명절 만들기)
다섯. 청소년과 담당지도자 모두 지구를 존중하는 환경지킴이가 됨

운영횟수	연인원
32회	791명

키워드 #청소년봉사활동 #또래지도자 #탄소중립 #반채식 #새활용 #플로깅 #수질개선 #비닐없는추석명절



쓰임새로 : 새활용 교육



파랑윤슬 : 다같이 찰칵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씨밀레 윤준서 / 김지민 / 김선우 / 박지은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자유지만, 책임을 지는 건 자신입니다.” 윤준서

처음에는 봉사가 그냥 좋아서 시작했어요.
진 환경을 생각해서 일상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항상 주워요.
추석에 ‘비닐 없는 명절 만들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장바닥에 보이는 쓰레기는 다 주웠던 적이 있어요.
저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집, 학교, 그리고 씨밀레에서의 저의 모습은 모두 달라요.
근데 저는 씨밀레에서의 관중끼 가득한 제가 제일 좋아요. 물론 다른 모습의 저도 좋지만요.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생겨요” 김지민

엄마 추천으로 1년만 해보자하고 시작했는데,
3개월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예전에 길고양이들을 위해 담배꽂이를 쓸어주는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의미 있던 활동이지만 환경을 주제로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니깐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추석명절 때 했던 ‘비닐 없는 명절 만들기’인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나눠 준 장바구니를 쓰는 모습을 보고 엄청 뿌듯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책임감을 더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실천이라도 한다면,
지구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우 [왼쪽]

가장 저의 큰 변화는 일상에서 환경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안 쓰는 방은 불을 끄고,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친구들이 손 씻을 때 물을 계속 틀고 있으면 간소리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씨밀레 활동을 하면서 원래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밝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겼어요.



“저희는 환경을 지키는 영웅들입니다” 박지은 [오른쪽]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이저 관중 박지은 입니다.
저는 씨밀레를 만나기 전에는 환경에 큰 관심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깨닫게 됐어요.

일산호수공원에서 저희가 직접 플로깅 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요면 저희가 준비한 환경 선물들로 바꿔주는 활동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인상에 많이 남아요.

사실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계속 씨밀레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②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명존중동아리 Volun-up 마두청소년수련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0만,
1400만 명이 반려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유기동물이나 동물학대 문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동물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생명존중동아리 Volun-up」
한 해 동안 우리가 도전했던 활동을 소개해볼게요.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갔던 날

| 연제 2022년 1월 ~ 11월 | 누구랑 고양시 14~16세 청소년 + 지역주민

- | 무엇을 어떻게
1. 첫 번째 도전
유기동물 터그 장난감 제작을 '또래교육'으로 운영해보자
: 또래교육 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모집 장난감 기부 활동 함께하기
 2. 두 번째 도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리플렛 제작해보자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고양시' 담아보기
 3. 세 번째 도전
펫티켓 영상으로 제작해보자
: 반려동물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자랑하기
하나. 우리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깨달음
둘.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전 기회 지원
셋. 새로운 도전을 통한 청소년의 성취감 및 높은 만족도 달성
넷. 동물을 사랑하는 청소년이 동아리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

운영횟수	연인원
26회	351명

| 키워드 #유기동물 #반려동물 #생명존중



위촉장도 받았던 첫 만남



또래교육 진행 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

생명존중동아리 Volun-up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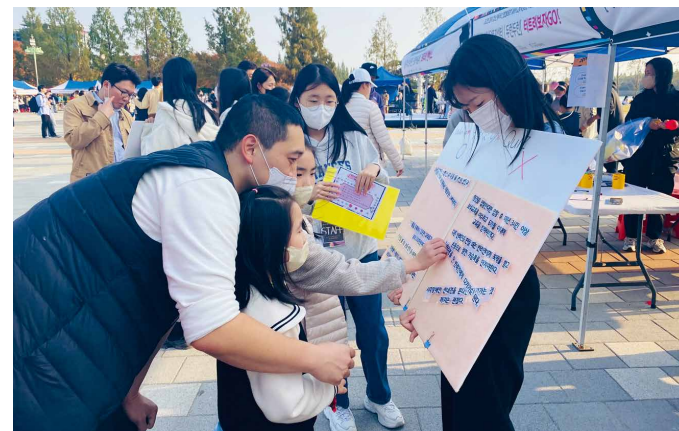
유기동물 만나러 간 날



리플렛에 담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생각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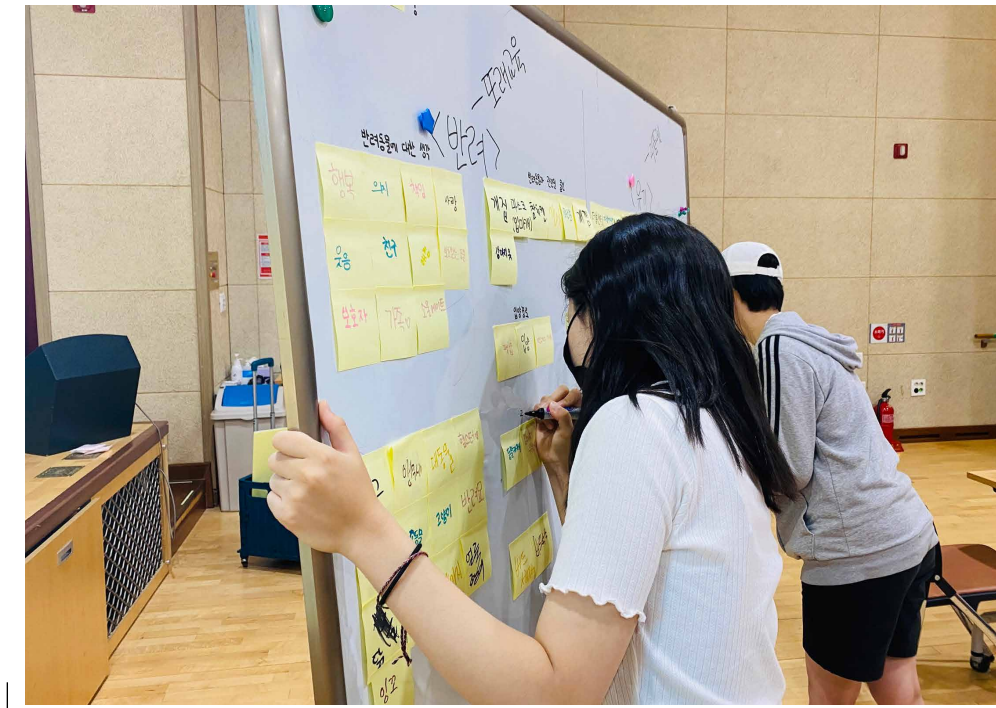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O,X 퀴즈 부스 운영하기



펫티켓 스톱모션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하기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Volun-up

엄태희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든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하죠.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을 위한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지 동물들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생각한 걸 직접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 중에 유기견 보호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여기 있는 동물들의 수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Volun-Up을 통해서 사실 얻은 게 또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랑 원래 어울리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단장까지 할 정도로 많이 밝아졌어요.

뭐든지 꾸준하게 하면서 다양한 걸 시도하다 보면 자신한테 맞는 걸 언젠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끈기를 가지고 동물들을 위해 Volun-up 활동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합니다.

③ 「프레임 속 프레임」

그 특별했던 이야기 토당청소년수련관

「프레임 속 프레임」은 두 가지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사진을 매개체로 청소년들의 시선을 담는 활동의 '사진 속 프레임'
또 다른 하나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 청소년 프레임'

'장애(특수학급)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프레임 속 프레임은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활동입니다.

1km 거리의 무원고에서는 매주 걸어서 수련관에 오고,
20분가량 걸리는 저현고의 경우 선생님들이 차량으로 청소년들을 태워 수련관으로 왔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과 학교 선생님의 그야말로 눈물겨운 '콜라보'였죠.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 문화 협동조합과 함께 연계하여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던 '장애 청소년'과 함께 했던 특별한 이야기, 7개월간의 동행을 소개합니다.



| 연제 2022년 5월 ~ 11월 | 누구랑 고양시 관내 특수학급 청소년 및 교사, 지역주민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기	나를 이해하고 카메라와 친해지기(오리엔테이션, 사진교육 및 실습)
	기록하기	지역사회 사진촬영 출사 8회 사진작품 기록하기 & 품평회
	공감하기	사진전시회 - 작가와의 만남 사진첩 발간
	공유하기	찾아가는 프레임 사진관

| 자랑하기

하나. '사진'을 매개체로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

둘. 2개교 연합활동으로 인원수가 적어 외부활동 기회가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타 학교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인관계형성의 기회 제공

셋.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사진으로 담고,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시너지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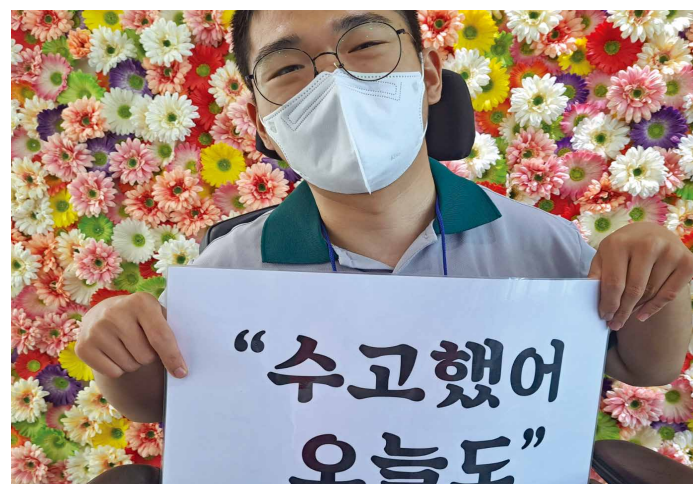
넷. 부모님, 학교선생님, 의원님 등을 모시고 공개방송 형태의 공유회를 운영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음

다섯. 청소년과 담당지도자가 모두 행복함을 느꼈으며 내년을 기대하고 꿈꾸는 희망을 가짐

운영횟수	연인원
20회	554명

| 키워드 #장애 #특수학급 #사진 #지역사회 #성장 #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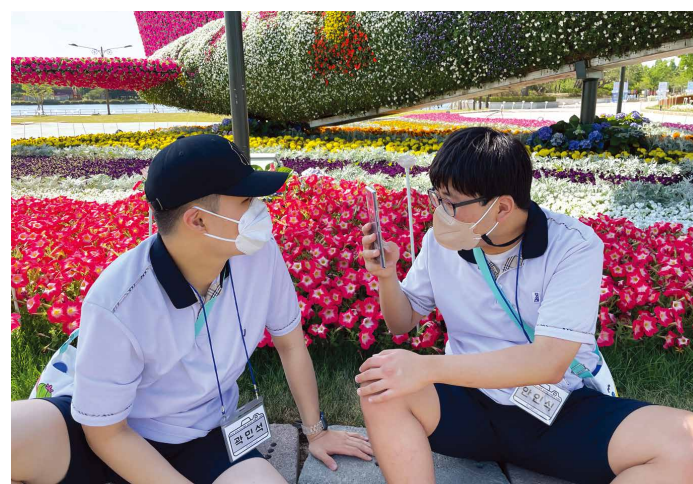
「프레임 속 프레임」 활동들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함께 있어 소중한 우리



서로 프레임에 담기



능곡시장에서 인터뷰 한 날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사람들」 이정애 / 최수호 / 문예린

22년 학기 초 저희 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수업이나 활동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의 답은 하나같이 “밖에 나가고 싶어요. 현장학습 가고 싶어요!”라고 외치던 게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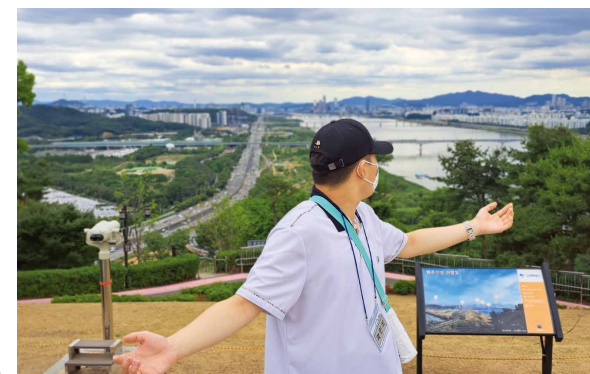
우연한 기회에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저현고와 인연이 되어 함께 진행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매주 학교를 벗어나 토당청소년수련관에도 가고, 외부활동도 하면서 학생들은 너무나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함께하는 저도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어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해 주시던 강사님들, 프로그램 진행과 지원을 해주신 박미나 차장님과 자원봉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벌써 내년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수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내년에도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무원고 이정애 선생님



행주산성으로 출사 with 무원고 광민석



능곡1904 앞에서 함께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학생들이 답답해질 무렵 토당청소년수련관 선생님과 무원고에서 제안이 들어와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학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신선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최선을 다한 강사님들과 박미나 선생님 덕분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게 많았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 저현고 최수호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친구들마다의 소통 방식과 관심사를 알 수 있었고, 다채로움에 스며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프레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좋아하는 장소에 그동안 ‘프레임 속 프레임’과 함께했던 기억과 이야기로 그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애뜻함과 따뜻함이 덧입혀진 좋은 곳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문예린 대학생 봉사자

청재가 함께 한 일상

행복



① 연기를 통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법

② 왔어요! 토.스터.즈!!!

③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 : 주교·화정·행신 청소년자유공간

① 연기를 통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법을 배우다

청소년 극단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연기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가 되었어요. 단순히 연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으로 승화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극단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참여한 청소년들은 알게 되었죠.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청소년들은 내적 성장을 해냈어요.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끝내 공연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의 성취감과 지나온 과정들은 그 6개월의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죠.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 '청소년 극단'을 소개합니다.

 연제	2022년 4월 ~ 10월	 누구랑	고양시 15~19세 청소년 지역주민
 무엇을 어떻게	공통과정	연극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 진행(오리엔테이션, 몸으로 표현하기, 상황극 등) 배역 선정을 위한 오디션 진행	
	공연 준비	대본 리딩 및 분석, 공간 구성(자리배치 및 공간 세팅), 공연 기획하기 모듬별 주기적 연습 진행 및 대본 수정, 피드백 주고받기	
	공연	최종 리허설 진행, 음향 및 무대 점검 <후배 위하는 선배> 공연(3회+1회 추가 공연), 관객과의 소통(질문에 답하기)	

| 자랑하기 하나. 스스로에 대해 가장 많이 묻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음
둘. 배우는 물론이고, 음향 및 소품 준비 등 스태프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연극의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함
셋.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행복함을 느낌

운영횟수	연인원
74회	830명

| 키워드 #자기표현 #협업 #연극 #진로탐색 #경험



몸짓 활동 '날! 따라 해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청소년 극단

강동완



친한 친구가 같이 하겠다고 보내온 문자 하나로 ‘청소년 극단’에 신청했어요.
연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그 문자를 받았던 그 시기에
혼자 좋아하던 여자아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순간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하고
저녁 한 끼만 먹고 또 자고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뭐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했던 순간에
그 문자를 딱 받았어요. 엄청난 타이밍이죠.

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건
말은 배역에 대한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21년에 소극장에서 연극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단원들이랑 같이
그날 공연했던 소감을 함께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냥 그 순간 그때의 공기 습도 이런 느낌이 좋았어요.

사실 연극을 하면서 좋기도 했지만, 서로 연습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잘 해결했고, 그 결과 좋은 공연들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뭔가 시작을 하면, 끝까지 어떻게든 하면 저에게 득이 된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함께했던 단원들과, 선생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② 왔어요! 토.스.터.즈!!! 청년서포터즈

청년서포터즈 토당청소년수련관



토.스.터.즈를 더 알고싶다면?

왔어요~!! 토.스.터.즈!!!! T^.^T

청년 서포터즈 [토.스.터.즈]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어쩔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던진 이야기를 하나씩 모아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 만나고, 가장 많이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고 리액션합니다.
우리는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토.청.수.를 이롭게하는 청년 서포터즈 [토.스.터.즈]입니다.

| **언제** 2022년 1~12월 | **누구랑** 20~26세 후기 청소년, 일반(유아, 청소년, 성인)

무엇을 어떻게	기본활동	오리엔테이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상·하반기 평가회의
	공동활동	문화예술DAY - 토리와 떠나는 바다·음악여행
	프로젝트 활동	단기 프로젝트 - 토리비안베이 · 토리네 마음약국 중장기 프로젝트 - 쇼미더경제
	보조활동	기후환경연대활동, 제안창작소, 응원프로젝트, 공존공원 축제 운영 보조
	교류활동	토스터즈 X 마스터즈(성동청소년센터 청년 서포터즈)
	소모임 활동	'소년심판' 함께 보기 & 원데이 아이패드 드로잉

| **자랑하기**

- 하나. 문서작성 능력+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지구력+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 둘. 청년 서포터즈 '토스터즈' 블로그 운영 활성화
- 셋. 단원들 간 사이가 굉장히 좋음
- 넷. 청소년 활동 기획 및 운영 경험치 향상+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실현할 수 있음

운영횟수	연인원
91회	682명

| **키워드** #토스터즈가_토스터즈_했다 #마스코트 #위아래꽂잡힌기강 #존재_자체가_자랑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토스터즈

김재우 문예린 박수빈 유아림



토스터즈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껴요.
음식을 시키더라도 12명이 모두 12가지의 메뉴를 말할 만큼 각자의 개성이 달라요.
근데 그 12가지의 다름이 모두 수용되는 곳이 '토스터즈'예요.

가족보다 많이 만나는 관계. 가족보다 더 밥을 많이 먹는 관계.

'토스터즈' 단원들은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서로 비슷한 학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험하는 이 과정이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값진 시간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서로 티놓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저희는 밥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까지 전부!
결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결국에는 협의를 하죠.

같은 어디에나 존재하듯, '토스터즈'에도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고, 잘 해결해 내면
지금 저희가 행복하듯이 행복함이 몇 배가 되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DAY



토스터즈 X 마스터즈 교류활동



토리비안베이

‘토스터즈’가 들려주는 Epis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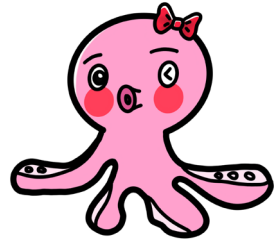
‘쇼미더경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던 중 발생한 ‘만빵’사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미니게임을 통해 가상화폐 ‘빵’을 얻을 수 있는 ‘수따’팀이 진행한 중장기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화폐의 단위는 10,000빵. 두둥. 그러던 중 당장 청소년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단위는 50,000빵까지 치솟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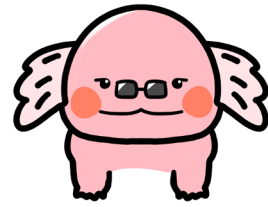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왔어요~! 토스터즈! 다른 프로젝트팀 토스터즈 단원들의 지원으로 수공예로 열심히 부족한 화폐단위를 작업하여 해결!

이 사건 이후로 남아있는 3, 4회기는 더 많은 만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게 되는 ‘오히려 좋아’ 상황을 만들었으며, 성공적으로 ‘쇼미더경제’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토스터즈’에게만은 엄청난 에피소드!

‘토스터즈’와 함께 성장한 우리



‘꿈꾸는 문어’ 문예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를 보면 주변에 바다 같은 그림이 같이 보인다고 해요. ‘토스터즈’에서 항상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우입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는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날카로운 피드백과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에 노력을 한 스펀 더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발전하려 합니다.



‘묵묵한 알파카’ 유아림입니다. 저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단원들이 방향성을 잃었다~ 싶을 때 특! 저의 한마디로 방향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잔잔하지만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리더상’ 박수빈입니다. ‘토스터즈’의 모든 단원들을 관찰 후 각자의 특징과 역량을 다 파악해서, 골고루 누구하나 빠짐없이 역할 가지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③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

첫 번째 공간, 청소년과 사계절을 함께 보내는 ‘주교청소년자유공간’



가을엔 역시 버스킹이지

넓은 마당, 탁 트인 창문, 작지만 소중한 다락방.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작은 청소년시설입니다.

학교에서 하교 후 학원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뒹굴고 게임하거나, 주말에 조용하지만 시끄럽게 친구와 속닥거리며 숙제를 할 수도 있고, 늦잠 그만 자라고 하시는 부모님을 피해 실컷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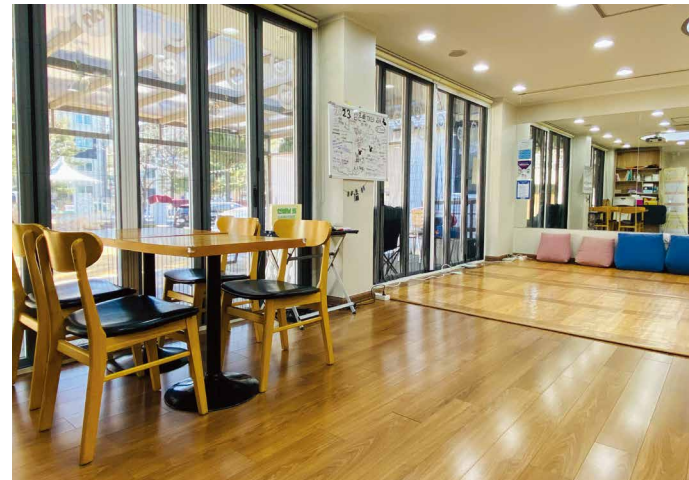
봄에는 이름 모를 하얀 풀꽃, 여름에는 처마 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안개, 가을에는 붉은 단풍나무, 겨울에는 눈 쌓인 낮은 담장을 볼 수 있는 사계절을 뚜렷하게 즐길 수 있는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을 소개합니다.

#자유 #다락방 #친환경 #아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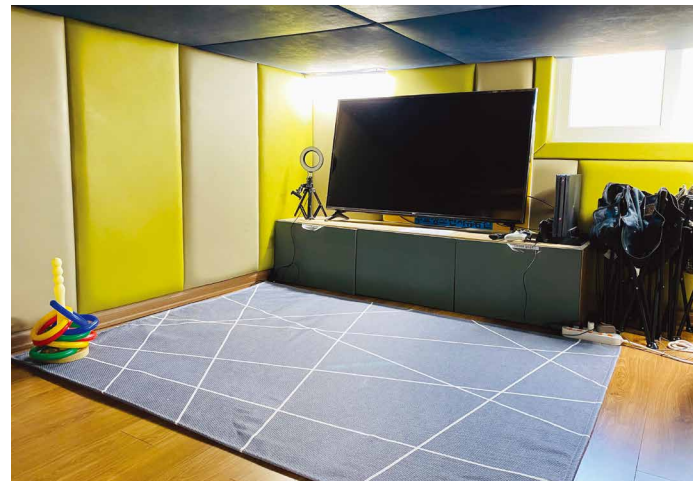
주교의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주교청소년자유공간입니다.



젬뜰-가장 편안한 자세로 핸드폰하기



병커-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추천게임-피파온라인)



다락방-침대에서 느긋하게 낮잠 자기 좋은 스팟

주교의 2022년



가족들과 함께하는 봄맞이 꽃칭 만들기



너무 더운 여름방학에 시원한 수박화채 먹기



겨울에 따뜻한 장판 위에서 쿠키 만들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③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

두 번째 공간, 자유로운 공간 속 꿈을 찾아가는 곳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자유로운 공간 속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화정청소년자유공간은 청소년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들 속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거나, 갈 공간이 없거나! 즐거운 여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공간 속에 즐거운 휴식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십 개의 보드게임, 파티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파티방
뽕뽕한 무료 와이파이, 누구나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포켓볼뿐만 아니라 독서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화정 와그작!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덕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화정역 1,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와그작”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자유 #침 #취미 #동아리 #꿀잼 #공간

화정의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파티방 - 생일파티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프라이빗 공간



침 -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휴식하는 공간



소풍 - 간단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곳!



놀 - 빔 프로젝터, 칠판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모임장소로 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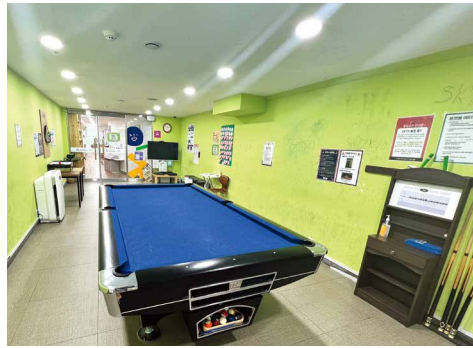


정보구역 -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작업하고, 프린트도 할 수 있는 공간!

화정의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꾸물 - 바리스타, 간단한 베이킹 등
진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팡팡 - 폴스, 포켓볼, 다트 등
신나게 노는 공간

화정의 2022년



화정 버스킹



청소년 자치위원회



브랜딩 화정



조언자판기

말할 곳 없는 나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조언을 받는 자판기!!
간단한 간식도 들어있는 상자를 한번 뽑아보세요.
안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을 마주할지도 몰라요.



③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

세 번째 공간, 꿈나무들의 생각이 쑥쑥 크는 '행신청소년자유공간'



누가누가 라이어일까? 제시어는 와그작(행신청소년자유공간)!

누가누가 라이어일까? 제시어는 와그작(행신청소년자유공간)!
누리고 배우고 함께하는 행신청소년자유공간
2022년 6월 첫 문을 열었어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행신역 앞에 터를 잡고
주변에 학원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걸어서 편하게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테이블과 색색의 의자, 동물 모양 쿠션, 귀여운 캐릭터 인형 등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내부 인테리어가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여가활동과 동아리활동으로
'행복'이란 '기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공간.

이곳에는 개성 넘치는 동아리가 가득합니다.
2022년에는 자체동아리 1팀, 청소년 개별 동아리 33팀으로 총 34팀의
청소년동아리가 함께하며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유 #침 #문화 #취미 #동아리 #꿈

행신의 '행복'이란 '기억'을 만드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신청소년자유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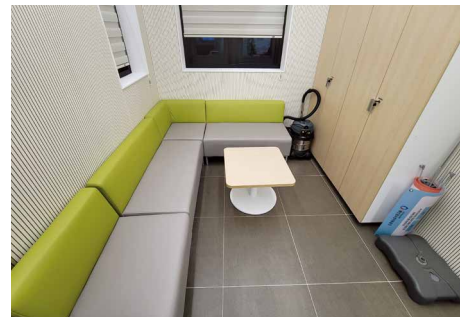
공유주방
이곳에서는 남남잡잡 맛있게 과자나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한 물도 정수기에서 꿀꺽꿀꺽



놀터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주도 놀이 공간
보드게임, 독서 등 다양한 여가활동 완전가능



루프탑
맑고 화창한 날 친구들과 시간보내기 딱 좋은 곳



자치활동실
자치활동실은 넓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 할 때 사용해요.



활동동아리실
친구들끼리 모여 만든 동아리!
보드판과 보드마카에 스마트 TV까지
동아리 친구들끼리 재밌는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곳

행신의 2022년



어려운 보드게임도 전략적으로 대결해보자



작곡, 작사.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동아리를 신청해보자 우리 동아리 이름은?
수상한 녀석들!



가을 꽃도 심고, 담장에 글귀도 붙이고,
내 다육이도 심고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랜턴을
만들 수 있다니!



영화도 보고, 포토존에서 할로윈 사진도 찍고
"Trick or treat!"



알라딘과 함께 노을 속을 달리며
"A Whole New World"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미니 트리로
기분 좀 내볼까?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

성장

PART 01



학교 밖 청소년 직장체험 '플로리스트'

PART 01

- 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청소년민주로드투어」
- ② 이루어 DREAM
- ③ 세상을 이어주는 울트라캡송나이스 자립지원 프로젝트 '직장체험'
- ④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청소년동반자'

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청소년민주로드투어」 탄현청소년문화의집



'민주로드투어' 여정을 함께한 우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민주시민'
'민주시민'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까?'
'민주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질문에서
청소년민주로드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민주화 역사 관련 장소를 탐방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듣고
네컷 만화를 그리고 전시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청소년민주로드투어'를 소개합니다.

연제 2022년 5월 | 누구랑 고양시 13~19세 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p>목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로드투어 활동 안내(활동 목적, 현장 탐방, 교육 등) - 민주화 역사 기본 교육(대통령 직선제 및 지방자치제 확립 과정 교육) <p>민주 로드투어</p> <p>민주화 역사 현장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방문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본 교육 <p>민주시민 소양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토론, 숙의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교육 <p>민주주의 네 컷 만화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의 기본 구성 교육 및 주제 선정 - 민주주의, 선거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용 네 컷 만화 제작
공유	<p>자신이 배운 민주주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네 컷 만화 온·오프라인 전시 - 청소년 인터뷰와 활동 내용을 담은 스케치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시 - 활동 결과 및 중요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자랑하기

하나. 민주화 역사 관련 장소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역사적 지식 및 민주주의 중요성을 체득
둘. 개인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
셋. 민주주의 관련 교육용 네 컷 만화 제작 및 전시를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은 보람을 느꼈음
넷. 네 컷 만화를 관람한 대부분 청소년이 '만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관람평을 남겼음
다섯. 청소년 인터뷰 및 활동 과정이 담긴 스케치 영상을 유튜브 게시 및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의 중요성 및 결과 지역사회와 환류

운영횟수	연인원
4회	259명

키워드 #일상 #민주주의 #투표 #민주시민 #성장



「청소년민주로드투어」 활동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및 활동 다짐



민주화역사 현장 탐방 ①



민주화역사 현장 탐방 ②



민주시민 소양 교육 ①



민주로드투어 소감 기록하기 ①



민주로드투어 소감 기록하기 ②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청소년민주로드투어

정윤서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사는 정윤서입니다.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고도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기분 좋은 자신감을 가질 만큼! 그래서 주변에서 잔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 타격감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 자존감도 높아요. 저는 이런 제가 좋아요.

민주로드투어는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직접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참여를 하면 일부 주어지는 봉사시간이 필요했던 게 시작하게 된 제일 큰 이유지만, 주말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와 닿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탄현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직접 시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저한테는 엄청 좋은 경험으로 남았고, 정말 민주주의가 가까이 있긴 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민주주의, 꼭 어른이 아니어도 청소년인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집에서 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밖에 일찍 나와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됐죠. 사실 제가 집중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로드투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집중력이 생각보다 좋네?'라는 깨달음도 얻었고, 원래도 시끄러웠지만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더 사회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거나, 다양한 인맥을 쌓고 싶거나, 학교나 학원에서는 절대 못해볼 경험을 하고 싶다면 꼭 '청소년민주로드투어'나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길 추천합니다!

② 이루어 DREAM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춤추는 우주인-모바일콘텐츠 제작 중

후기 청소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우리가 정한 거 말고 진짜 청소년이 하고 싶은 걸 지원하자는 단순한 결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루어DREAM'입니다.

단편영화제작, 앱 개발, 밀키트 개발 등등 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루어DREAM이죠.

해보고 싶은 걸 해나가는 1년의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모든 팀들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동력 삼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그 여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 2022년 1월 ~ 12월

무엇을 어떻게 (활동내용)	운영일	주요내용
	2~4월	이루어DREAM 참가팀 모집
	4월	이루어DREAM 1차 심사 및 컨설팅 2차 심사 진행 이루어DREAM 2차 컨설팅 이루어DREAM 최종 선발 11개팀 워크숍 - 멘토 특강진행/ 회계 교육 및 프로젝트 공유회
	5~11월	이루어DREAM 팀별 예산교부 및 프로젝트 - 예산교부/팀별 프로젝트 진행 및 팀장 회의
	8월	중간 공유회 운영 - 이루어DREAM 활동보고/팀별 프로젝트 진행과정 공유 (PT발표)
	11월	성과 공유회 및 최종발표회 진행 - 전시회를 통한 팀별 성과공유 진행, PT심사를 통한 최종발표회 - 4개 우수팀 선정

누구랑 고양시 거주 후기청소년(만19세~24세)

자랑하기 하나. 자기 주도적 팀 활동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의 협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성장시킴
둘. 후기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꿈을 지원하는 사업 셋. 중간평가, 성과 공유회를 통해 다른 팀들의 성장과정을 함께 공유함 넷. 참가 청소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운영횟수	연인원
125회	1,783명

키워드 #후기청소년 #진로 #자기주도적



이루어드림 워크숍



이루어드림 2차 심사 날



중간평가회 날



최종평가발표회 날



이루어드림 시상식



「HOLY GRAIL」
인간과 식물의 관계 공존을 표현한 영상작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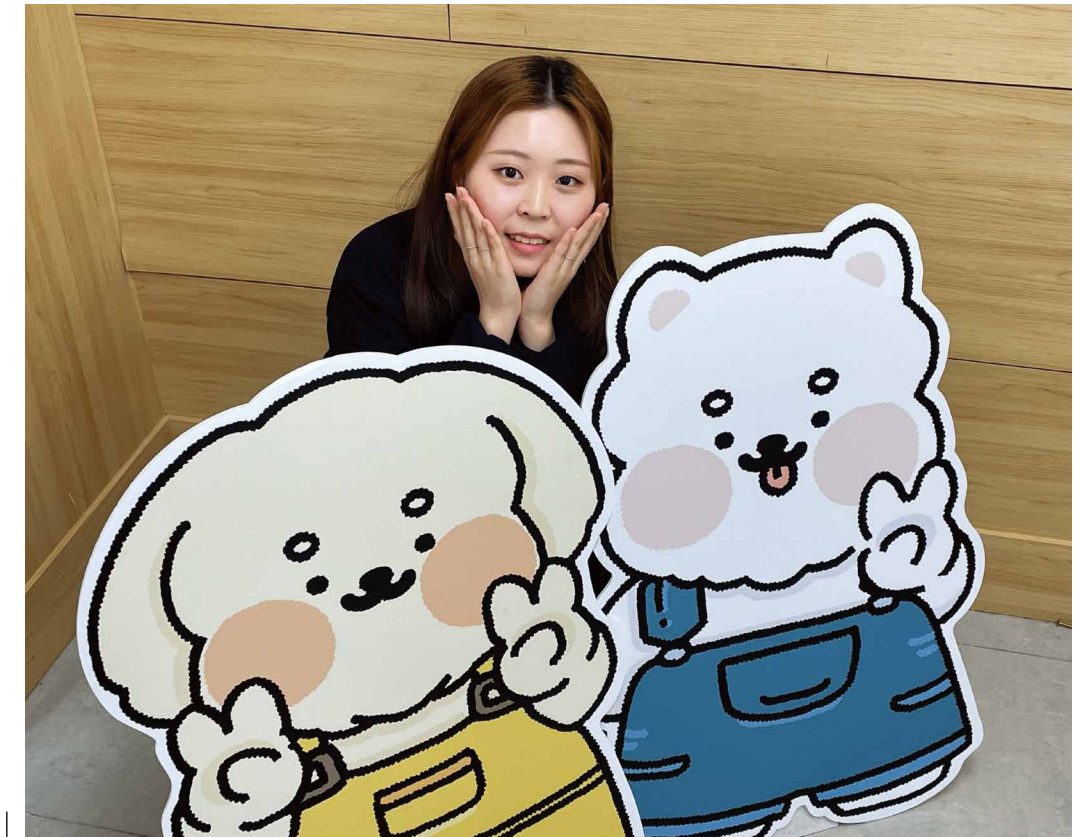
「열무고양이」
고양시 특산물 열무를 활용한 밀키트 개발



「건구스」
배달비를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 배달 어플 개발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이루어DREAM

댕댕백과 이지원



인스타그램 댕댕백과
dog tinary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산지 10년 된 '댕댕백과' 프로젝트 팀 팀장 24살 이지원입니다.
저는 엄청 소심하고 걱정도 많지만, 또 리더를 자진해서 하는 성격이기에 스스로를
'내향적 관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취미도 많아요.

2022년,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쉬고 있던 중에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이루어드림'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시에 살고 있다 보니, 눈길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 고양시 우수 시민이 될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팀으로 지원을 해야하다보니, 팀원들을 꾸려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친구부터 다른 활동을 통해 만났던 지인까지 모두 연락을 돌렸고,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댕댕백과'라는 팀이자 브랜드를 만들어 건종별 특성을 살린 굿즈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팀원들 간에 사는 곳도 다 떨어져 만나기가 힘들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서로 어렵지만 함께 극복해나가면서 결국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도 수상하는 좋은 결과도 얻었어요.



굿즈 촬영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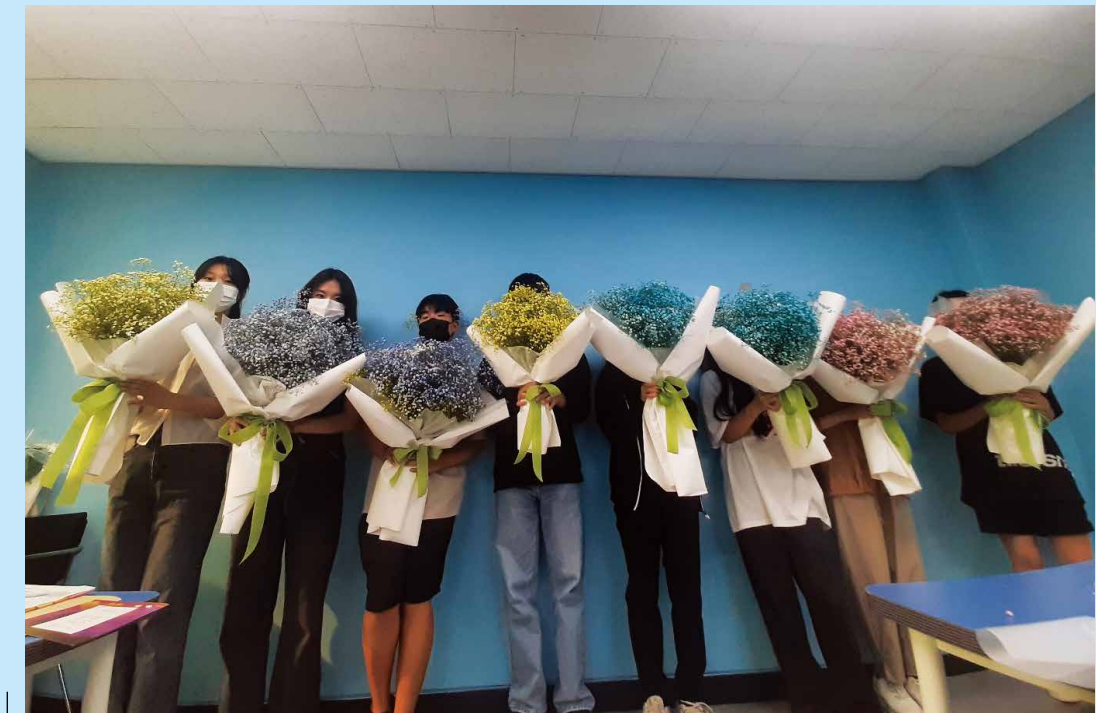
'땡땡백과' 굿즈를 소개합니다.

근데 결과보다 과정에서 많은걸 얻었어요. 예산도 지원 받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다른 팀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중에 팀장 회의, 중간평가, 워크숍, 공유회 등 체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칫 지루하고 지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정에 이루어드림의 과정 하나하나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다른 프로젝트팀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저와 같이 창업에 시도해보고 싶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돈 버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해라!
 셋째, 그리고 무능한 게 인간은 아닌데 겁을 먹으면 무능해지니깐 겁먹지 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③ 세상을 이어주는 울트라캡송나이스 자립지원 프로젝트 '직장체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끈기와 성실함을 발견합니다!

심도 있는 기술훈련으로 어느 직장인 못지않은 실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립기초교육과 기술훈련, 직장체험을 한 세트로 엮은 자립지원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직장체험은 자립지원 프로젝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가 선택한 자립기술훈련을 마치면 엄격한 심사에 의해 직장체험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발하고 선발된 청소년은 각자의 체험처에서
 100시간 이상의 직장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직장 체험처에 배정된 날.

웬만한 아르바이트생을 능가하는 친구들의 솜씨에 대표님들이 적지 않게 놀라시는데요.

무궁무진한 꿈을 따라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 넘은 용기 있는 청소년들의 도전이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관찰음을 확인하는 직장체험 성공기!

들어보시겠어요?

언제 2022년 9월~11월 | **누구랑**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직장체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필수 공통과정으로는 자립준비교실, 선택과정으로는 기술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직장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필수과정 자립준비교실(취업지원, 생활관리, 청소년노동인권, 경제관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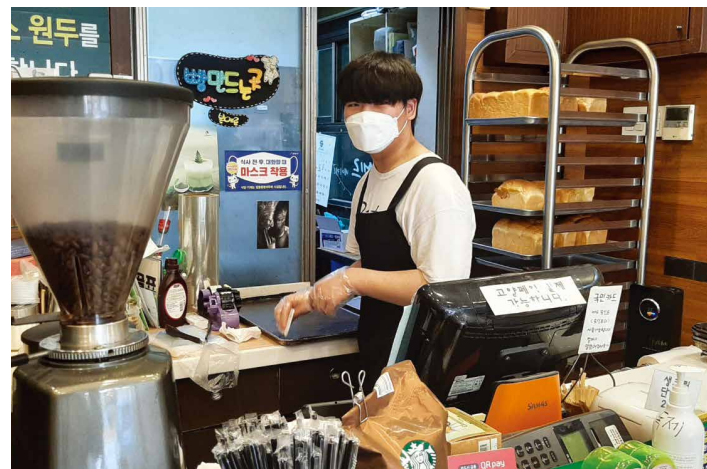
자립기술훈련 바리스타 클래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제과제빵 클래스: 기초제빵과정 32시간 훈련
 플로리스트 과정: 식물의 특성을 이용한 작품 완성 과정
 미용기술: 속눈썹 연장 기술 습득

직장체험 - 베이커리 관련 기초 업무를 도우며 제빵기술과 손님 응대 방법 점검
 - 바리스타로서 다양한 주문을 받아 음료 제작
 - 화분관리, 컨디셔너, 핸드타이 제작을 통한 플라워 샵 운영 보조

자랑하기 하나.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둘. 관심분야의 직무 경험으로 실질적인 정보 취득과 멘토 협력이 가능함
 셋.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사회 진입의 첫 발을 안전하게 내딛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됨

운영횟수	연인원
124회	600명

키워드 #성장 #진로 #경험 #실전 #성취



바리스타 직장체험



사회적 기업 직장체험



바리스타인데 샌드위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슬픈



빵 만드는 순간 찰칵



홍보마케팅 직장체험

「청재와 일상을 함께한 청소년」

세상을 이어주는 울트라캡송나이스 자립지원 프로젝트 '직장체험' 김지유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 19살 김지유입니다.
저를 표현하자면 사람 좋아하고 낮 안 가리는 '밝은 오지라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을 잠시 나갔다가 한국을 돌아왔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찾기 위해서 꿈드림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주로 꿈드림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서 센터에 직접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본받고 싶은 언니를 만나기도 하고 저도 그 언니처럼 새로운 동생들이 오면 먼저 말을 걸기도 하면서 센터가 집처럼 편해지게 됐어요.
직장체험을 하면서 했던 플로리스트과정은 꽃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생소한 주제의 활동이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선택했죠.

학교를 다닐 때 미술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 과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었고, 사실 조금 심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꽃을 만지고 보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벌써 끝났어?'라고 할 정도로 시간도 빨리 갔어요.

직장체험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막혔던 제가 다양한 사람과 함께 하며 다름을 배우고 이것저것 경험(꽃 포장, 꽃 배달 등)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활동 중에 '지유쌤'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렇게 불렸던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저를 존중해주며 불러주는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작은 조절은 필요하겠지만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던 2022년은 참 많은 성장을 한 해였습니다.

④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청소년동반자」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갈리고 갈려 깨질 것 같은 그릇'

이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릇의 결함보다는 그릇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람, 거기에 무엇을 담아낼지가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 역할이 우리 청소년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상담사 26명은 고양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연인원 9,365명의 위기(가능)청소년들을 만나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가능)청소년들의 손을 잡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의 마음 산책길을 걸어 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발자취들을 소개합니다.

연제	2022년 1월~12월	누구랑	위기청소년 및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고양시 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심리상담	주 1회 50분씩 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가 1:1로 만나 대면상담	
	동반자사업	푸드 테라피·문화감수성의 날	
동반자 전문성 향상		매주 청소년동반자 팀 사례 회의 운영을 통해 사례 검토 및 동료 슈퍼비전 상담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사례 개입을 위한 공개 슈퍼비전	

자랑하기 하나. 고양시 전역을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진행
둘. 상담을 통해 청소년과 동반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 기회 제공
셋. 가족관계 증진 푸드테라피, 문화체험활동사업 참여, 상담 받은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 도출
넷.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적응을 위한 적극적 도움
다섯.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보유

운영횟수	연인원
7,568회	9,365명

키워드 #위기청소년 #찾아가는상담 #심리검사 #정서적지지 #지역사회 연계



가족관계 증진 푸드테라피 설명사진



미술치료를 활용한 상담사 소진예방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 역량강화교육 “학교부적응 사례 개입”



청소년동반자 역량강화교육 “자살위기개입의 실제와 적용”



개인상담



팀별 사례 회의



위기(가능) 청소년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가자! 놀이동산으로” 단체사진

「동반자가 만난 친구의 이야기」

아직 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던 9월의 어느 오후,
상담실 앞에서 열아홉 살치고는 작은 체구에 풀죽은 표정을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 내내 잔뜩 긴장한 자세로 제 눈치만 살피던 내담이에게는 법원에서 내려진 수강명령 이행을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을 한 내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마구 샘솟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매섭게 눈을 치켜뜨고 입을 꼭 다무는 내담이에게서는 그 어떤 이야기조차 제대로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무조건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야만 하는 법원 연계 상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마음을 달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말하기 싫어하는 내담이에게 심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꾀꾀 숨겨진 내담이의 마음이 검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을지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심리검사라 할지라도 철옹성처럼 딱 닫혀버린 마음 문을 열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리검사를 하면서도 내담이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방어했는지 결과지에는 아무런 특징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잔뜩 털을 세우고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는 길고양이처럼 날을 세운 이 내담이가 한편으로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담이와 약속된 만남은 단 6번.

첫 번째 만남과 심리검사 한 날을 제외하면 고작 네 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담이는 여전히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상담실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속 깊이 막막함을 느끼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문득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이 내담이가 잠은 잘 자는지, 삼시 세끼 밥은 꼬박꼬박 잘 먹고 다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 내담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밥은 잘 먹고?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대화할 사람이 집에 있니?”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내담이는 정지버튼을 누른 화면처럼 아무 미동 없이 앉아 눈물만 툭툭 흘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날은 그렇게 50분간 내담이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소한 물음이 내담이 마음속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일까요?
그날 이후 이어진 상담부터 내담이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대신에 처음처럼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거나 하는 일 없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3, 열아홉이었던 내담이의 마음은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내담이는 그때 느꼈던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하나도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 괴롭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내담이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담이에게 돌아온 것은 “네가 잘못이 있었겠지.”하는 싸늘한 질타였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내담이는 그때부터 ‘내 사정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 오늘날 상담을 할 때까지 내담이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마치 말을 삼키듯이 침을 꿀꺽, 하고 삼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6번의 만남을 통해 눈물과 과거의 아픔을 함께 털어놓고 모든 수강명령을 마친 내담이는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조심스럽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내담이가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서’입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내담이는 IT쪽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내담이는 잔뜩 기가 죽었던 이전 모습과 달리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웃기도 하고,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들뜨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남은 상담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 낼 수 있도록.

오늘도 푹푹,
내담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청재가 함께 한 일상

⋮

청재와 함께 성장한 청소년 이야기

PART 02

첫 번째 이야기.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민재

두 번째 이야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윤서 / 김세현 / 정하람

첫 번째 이야기.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민재'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2019년. 그때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사실 처음에 학생이다 보니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대외활동 이력이 필요했고,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의회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처음에는 넘겼다가 또 다시
보게 되면서 부모님의 적극추천과 함께 시작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보통 요즘 MBTI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ISFJ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대외활동을 신청해서 면접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다행이 친한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함께 해주게 되면서 의회와의
인연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조용히 위원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다녔어요. 그런데 3대 의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의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4대 의회 때는
뭐가 됐든 간에 뭐라도 한번 맡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대 의회 때 상임위원장이 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 위원에서 위원들의 대학생 멘토까지 지금까지 약 4년을

쪽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를 나는 계속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과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도 재밌고...

그리고 직접 지역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는 경험도 하는데,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고, 지금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동이 쉽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가 4대 본회의 날이었는데,
시의회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의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 조금은 당돌하게
볼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 제가 의회의 대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의회를 참여하기 전과 동일하게 전 지금도 여전히 내향적입니다. 그런 저의 성격을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의회를 시작 한 이후에 대학교를 가셔도 그래서 대학교를 가셔도 학생회,
모의국회 등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생겼다는 것.
그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 더 이상 공부하는 존재만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토당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신윤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22년 기준) 신윤서입니다.
공부로 인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음악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특기는 태권도 '뒤후리기'입니다.

처음 토당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누나가 다녀서 자연스럽게 저도 부모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오게 됐거든요.

이곳에서 많은 걸 했지만,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함께 요리 만들고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가장 좋았어요.
서로 평소에 말을 많이 안하는 편인데, 많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고
그 이후에도 집에서 같이 음식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도 맛있어서 더 좋았어요.

사실 이곳에서 모든 친구들과 성향이 같지는 않아서 힘들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사교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또, 저는 공부를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잘 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운데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복습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가장 큰 저의 변화는 사람을 '단면'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국어논술 수업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학교에서도 논술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직접 저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에게는 큰 변화를 줬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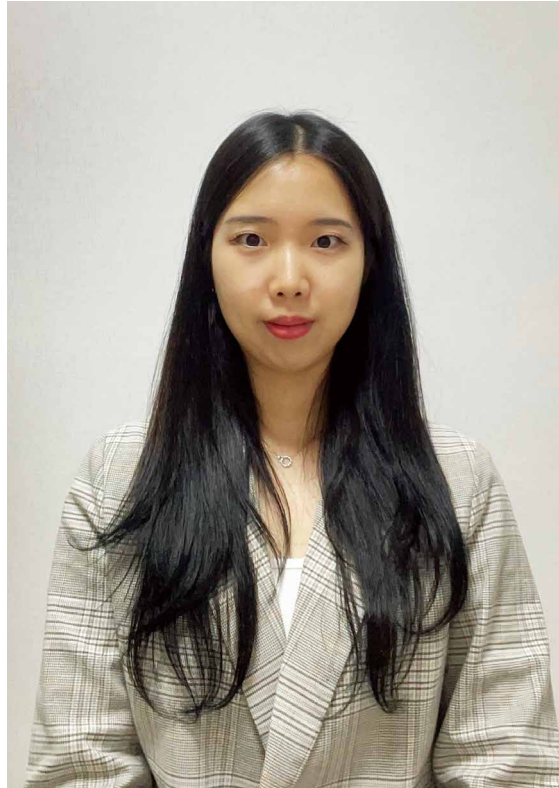
저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배워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배워야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한자성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결과는 운명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노을학교」 '김세현'



안녕하세요. 21살(22년 기준) 김세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다니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 '노을학교' 하게 됐어요.
그렇게 5학년부터 6학년 때 까지 2년을 다녔어요. 그때, 저는 언니오빠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걸 배웠거든요.
지금은 멘티가 아닌, 그 언니 오빠들처럼 멘토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5-6학년 동생들을 만나면서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왜냐면 5-6학년 시기에 제가 이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노을학교'로 시작한 고양시청소년재단과의 인연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씨밀레'도 지원해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었고, 22년도가 돼서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싶다 생각해서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루비'에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가 정말 청재랑 같이 성장했네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넓은 인간관계도 가지게 되고 발표 능력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에 좋은 추억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지금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노을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고양 600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던 장면이에요.
그때 받았던 단체 티셔츠가 있는데, 애착 잠옷이라서 집에서 아직까지도 입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랬듯이, 지금 만나는 동생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라온꿈터」 '정하람'



안녕하세요. '라온꿈터' 졸업생 고양시 청소년 정하람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손해 보는 건 싫어해서 싫은 건 딱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느 제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엄마에게 등 떠밀려서 오게 됐어요. 처음에 선택권은 없었어요. '갈래? 안 갈래?'가 아니라 '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깐 당연히 해야 했죠. 학교 끝나고 하는 것도 없는데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몇 번 오고 나서부터는 저 스스로 좋아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잘 안 여는 스타일인데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깐 사춘기를 잘 극복하게된 것 같아요.

솔직히 집보다 '라온꿈터'가 있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저한테는 더 편했어요. 저랑 항상 반겨주고, 여기는 다 '내 편이다'하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중국에서 살았었고, 이혼가정이자 재혼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6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 시기에 '라온꿈터'에 오게 된거죠.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힘든 상황이라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때 안전하게 저를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것 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친한 형이랑 같이 둘이 돌아다녔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마냥 좋아하면 즐겼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구나. 참 좋다.' 라는 생각이요. 원래 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날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느꼈고, 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저만의 '테두리'가 있어요. 전 '내 사람'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딱히 큰 거는 없고, 그냥 피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해요.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라온꿈터'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오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냥 '진짜 할 게 없는데,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곳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곳이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쁜 일은 같이 웃어주고 내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같이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특히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신 '라온꿈터' 김해수 선생님에게 감사해요. 엄마에게 못하는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제 마음을 보듬어주시기도 하고. 묵묵히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는 못사는 것 같아요. 꼭 누군가는 있어야하는데, 이왕이면 저에게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널 위한 곳이다' 라고 '라온꿈터'를 말하고 싶어요. 청소년을 위해 만든 곳인데 썩히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달기

청재의 이야기 작업에 도움주신 분

김건용
 김성은
 김지혜
 김해수
 김혜준
 노주홍
 박미나
 백여민
 오민주
 원새미
 유경연
 유해림
 이 슬
 임준성
 전선영
 차살롬
 홍수련

취재·편집

남윤아

감수

장맹배·이준석

청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달기를 바랍니다.

청재를 더 알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APP



2022년 청재의 이야기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연락처 031.995.4100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2, JS빌딩 8층
디자인 록컴 070.7529.2880
홈페이지 <https://www.gcyf.or.kr/>